



정 홍 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실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체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 과정에서 사회복지지는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또한 2006년 이후 2회에 걸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사회복지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이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존재하는 현장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사회복지정책과 정책수요자가 대면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지역사회복지지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지를 의미하며,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총체적 노력과 다양한 시도를 포괄하는 집약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복지사업의 우선순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4년 단위 중기계획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1~2002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통해 15개 시·군·구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 시초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2003.7.30)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두 차례(2006, 2010)에 걸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다. 2006년에 수립된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은 계획 수립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은 이전 계획에 비해 몇 가지 측면에서 질적 발전을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비해 민간영역의 역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공공영역과 민간영

역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작성에 중심적 역할 수행과 계획의 심의를 담당하였다. 2기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의 종합계획으로 자리 잡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지역간 격차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관심과 열의, 계획의 실효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활성화 정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된다. 따라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가장 유의할 점은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의 방향을 지향하기 위한 계획 수립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집중 조명하고자 하였다. 우리사회는 19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서 사회복지제도의 급격한 팽창과 제도적 성취를 이룩하였다. 사회복지의 확대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제도 설계와 결정, 그

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집행이라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이러한 정책구조하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극대화되어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로 권한과 역할의 비대칭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정책과 복지전달체계의 지향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체 기획력을 높이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사회복지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국민들이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복지 정책기획과 집행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이다.

2월호 특집은 1기와 2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3기 계획의 수립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의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3기 계획 수립의 전략과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포괄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국가 사회복지정책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보건복지**